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Online Service for Korean Christians During the COVID-19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연구

유지은(Jieun Yoo)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tudy the experiences of online service during the COVID-19 and to find out Korean Christians' perception.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s the differences in online service content, interactions with pastors and lay people through online service, online service environment, and online service satisfaction. A survey was conducted for 176 Korean Christians over the age of 18 living in the metropolitan area. As a result, according to the size of the church attending, the period of faith, and the position, there was a difference between groups in the online service contents, interactions with pastors and lay people through online service, online service environment, and online service satisfaction.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atisfaction of online service were the interaction with the lay people, the online service environment, and the online service content in that order.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 discussion on the improvement of online service satisfaction and a suggestion for further research are presented.

Key Words

Online service content, Interactions through online service, Online service environment, Online service satisfaction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과 만족도 연구*

A Study on the Experiences of Online Service for Korean Christians During the COVID-19

유지은(Jieun Yoo)**

논문 요약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한국 교회에서 실시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이해를 위해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내용 및 방법 :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최종 176명이 참여하였다. 집단 간 평균 차이를 밝히기 위해 t-test, ANOVA 분석을 하였고,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결론 및 제언 : 출석하는 교회 규모, 신앙 기간, 직분에 따라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서 집단 별 차이를 보였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내용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코로나19 이후 지속될 온라인 예배 만족도 향상에 관한 논의 및 후속 연구를 위한 논의를 제시하였다.

〈 주제어 〉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

□ 2022년 11월 26일 접수, 2022년 12월 28일 심사완료, 2022년 12월 29일 게재확정

* 이 논문은 한국기독교교육학회 2022년도 추계학술대회(2022년 11월 12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보완한 것임.

** 안양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msje9295@anyang.ac.kr

I. 들어가는 말

코로나19가 유행한 지 2년을 훌쩍 넘어서고 있는 지금 한국 사회 각 분야에서 그 이전에는 생각해 보지 못한 다양한 변화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중 하나가 한국 교회의 예배 지형의 큰 지각 변동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를 고려해 본 적 없던 시골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도 실시간 예배를 진행하거나 영상 콘텐츠를 제작하는 등 기존의 신앙생활과는 다른 형태의 온라인 예배가 새 기준(New Normal)으로 자리 잡고 있다. 물론 한국교회의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 두기 및 모임을 금지하는 정부의 방역 방침에 따른 것으로 시작된 면이 있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의 시도는 온라인 공동체의 가능성과 더불어 신학적, 기독교교육적 의미를 논의하는 이론적인 것으로부터(김성중, 2020; 김형락, 2021) 비대면 예배 참석 태도나 예배 매뉴얼 등 개교회별, 교단 별로 기존에 심도 있게 고민하지 않았던 온라인 예배 관련 실천적 사항들을 살펴보게 된 계기가 되었다. 이에 기독교 학계에서도 온라인 예배 관련 문헌적 연구뿐만 아니라 다양한 실증적 연구들이 시행되고 있다.

지용근(2020)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에는 70%가 넘는 교회가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지 않았지만,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 활용이 급격히 늘어났다. 하지만 온라인 예배에 대한 선호도에 있어서 코로나 기간 중 증가하는 듯하다가 2022년에는 다시 감소해 여전히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손동준, 2022). 최근 2022년 코로나19 이후 목회데이터연구소와 희망친구 기아대책에서 발표한 한국 기독교인(개신교인)의 온라인 신앙 및 소그룹 활동에 관한 설문조사에서 한국교회 기독교인 중 80% 이상이 온라인으로도 교회 공동체 일원으로 소속감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주화, 2022).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에서 발표한 코로나19 이후 교회에 방향성을 제시하는 설문조사에서는 한국교회가 온라인 예배 병행을 고민할 때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를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고 성도들의 온라인 예배 생활을 돕는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결과를 발표했다(표현모, 2022).

이처럼 온라인 예배 시행 및 참여에 대한 긍정, 부정을 넘어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예배 참여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실증적 연구에서 등장하고 있지만, 온라인 예배 관련 교회 현장에서의 구체적 이해와 이를 바탕으로 온라인 예배 만족에 영향을 주는 요인에 관한 실증적 연구는 아직 미미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 활동 경험을 탐색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코로나19 이후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가?

2. 코로나19 이후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주요 변인은 무엇인가?

II. 이론적 배경

코로나19 이후 예배의 일상이 변화되고 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등의 스마트 기기의 발달과 함께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의 등장으로 전통적인 대면 예배의 형식에서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는 보편적인 예배 형태로 자리 잡게 되었다. 사실 온라인 예배 형태가 갑작스럽게 보편화한 데에는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교회의 집합금지(대면예배 금지)가 전면적으로 시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온라인 미디어 기술의 발달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정형철, 2021). 이미 코로나19 이전에도 기독교방송(CBS), 극동방송, 기독교 TV(CTS)뿐만 아니라 대형교회의 자체 방송을 통해 방송으로 예배나 담임목사의 설교를 시청하는 비대면 예배 행위는 있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에 대한 논의는 방송을 통해 종교 관련 콘텐츠를 시청하는 것을 넘어 온라인 미디어를 통해 사이버공간에서 시행되는 의례 행위에 대한 주제로 확대되었다(정형철, 2021). 따라서 1970년대 이후부터 방송매체를 통해 방송의 선교적 역할을 강조하면서 발전한(김수영, 2005) 기독교 방송의 예배 및 설교 영상 시청은 직접 교회에 가지 않고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라고 해도 코로나19 이후 등장한 온라인 예배와는 구별된다.

코로나19 이전부터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등장한 온라인 예배는 다양한 형식으로 시도되었다. 기존의 텔레비전 매체를 통한 기독교방송과 유사하게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녹화 또는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중계하는 것에서 온라인 가상 공간에서 예배 참여자들이 자신의 아바타를 이용해 보다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형태까지 다양하다(베르거, 2020). 특히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게임과 온라인 산업에서 등장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교회 예배에도 적용되고 있다(신현호, 2022; 옥장흠, 2022; 이선영·김난예, 2022). 가상을 뜻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가리키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인 메타버스는 ASF(Acceleration Studies Foundation)에서 제안한 기술 종류와 활용 방식에 초점을 맞춰 증강(augmentation)/시뮬레이션(simulation) 축과 사용자의 이용 방식에 초점을 맞춘 외적(External)/내적(intimate) 축에 따라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가상세계(virtual world), 라이프로그(lifelogging), 거울세계(mirror world)의 네 가지로 분류된다(김형락, 2021; 한상열, 2021). 이중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와 유사하게 만든 공간으로 VR과 3D, 4D 같은 게임 혹은 대중 미디어로써 쓰고 있는 가상세계(virtual world)와 SNS라고도 불리는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 자신의 일상생활 및 정보를 공유하는 것과 같은 미디어 매체를 의미하는 라이프 로깅(lifeloggng) 등이 코로나 이후 교회에서 시도해 온 메타버스의 대표적 형태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교회는 코로나 기간 유튜브(youtube) 등의 동영상 플랫폼이나 줌(zoom)과 같은 상호작용이 가능한 온라인화상회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나, 교회학교와 같은 교육부서나 젊은 층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서는 가상세계(virtual world)를 활용하는 등의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 2021년 온누리 교회에서는 청년 수련회를 게더타운(Gather Town)에서 진행했으며, 우리들 교회도 청년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각자 캐릭터를 만들어 교회에서 알려준 링크로 접속해 가상공간 속 교회로 들어가 메타버스에서 큐티 페스티벌을 진행하였다(박건도, 2022).

이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온라인에서 행해지는 예배 형태는 기존의 대면으로 진행되어 온 전통적 예배와는 같을 수 없기에 신학적 차원이나 목회적 차원에서 관련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윤영훈, 2020). 특히 실천적 차원에서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어 온 온라인 수업의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바탕으로 온라인 공과 공부나 온라인 예배 관련하여 기독교교육적인 적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등장하고 있다(유지은, 2020). 그중 시간과 공간상의 제약을 넘어 균등한 교육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의 특징은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예배의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온라인 동영상 예배는 반복 시청이 가능하고, 공간 이동에 따른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할 수 있으며 현장 예배에는 적용하기 어려운 다양한 콘텐츠를 사용하여 짜임새 있는 예배를 구성할 수 있다(오현주·홍경화, 2021). 온라인 동영상 예배의 제한점으로 거론되는 능동적 참여의 결여와 소통의 부재는 줌(zoom) 등의 플랫폼을 사용하여 쌍방향 화상 예배를 통해 보완할 수 있다(이은경, 2020).

이와 같은 온라인 예배는 코로나19 이후에도 형식적인 부분은 달라진다고 할지라도 지속될 것이라는 관점이 지배적이어서 관련 연구들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박기영·송진영, 2021; 오현주·홍경화, 2021). 대부분의 실증적 논의들은 온라인 예배 관련 기술적 장단점에 관련한 부분이 많거나(박진우, 2021; 오현주·홍경화, 2021; Oh & Hong, 2021) 대안적 예배로서의 실천적 접근(안덕원, 2020), 또는 지속 가능성 관련 논의(박진우, 2021) 등에 관한 것이 많으며, 기술통계분석을 통한 온라인 예배에 대한 인식(강주화, 2022; 손동준, 2022; 지용근, 2020) 등도 등장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예배 참여자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만족과 이해 그리고 그 관련한 변인에 관한 심층적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예배참여자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온라인 예배 만족도와 그 관련 변인을 탐색해 보고 기독교교육적 차원에서 온라인 예배에 관한 논의 및 제언을 시도하려고 한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자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구두로 동의한 수도권지역에 거주하는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9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총 210명이 참여하였으며 참가자 중 불성실하게 응답한 경우나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를 제외하고 총 176명을 최종 대상으로 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연구절차 및 분석방법

자료분석을 위해 PASW 18.0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위한 기술통계, 설문도구의 신뢰도 측정을 위한 Cronbach's α , 집단간 평균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t-test, ANOVA 분석, 각 변수 사이의 상관관계 분석, 그리고 각 요인들 간의 영향력 검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 도구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을 살펴보고자 온라인 예배 및 학습관련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만족도 조사 항목을 추출한 뒤, 온라인 예배를 진행했던 목회자 1명과 기독교 교육자 1명의 자문을 얻어 본 연구의 목적과 내용에 맞게 조사 항목을 재구성하였다. 질문의 내용은 참여자의 인구통계학적 문항, 온라인 예배 내용에 대한 문항,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과 관련된 문항, 온라인 예배 환경과 관련된 문항,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관련된 문항으로 크게 다섯 부분으로 범주화하였다.

질문의 유형에 따라 선택형 문항과 5단계 리커트 척도(1 전혀 그렇지 않다, 2 그렇지 않다, 3 보통이다, 4 그렇다, 5 매우 그렇다)로 제시하였다. 신뢰도 분석을 위해 Cronbach's α 계수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온라인 예배 내용은 .83,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은 .90,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은 .92, 온라인 예배 환경은 .70,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87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높은 내적 신뢰도를 보여주었다.

〈표 1〉 질문지 구성

구분	문항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변인	성별, 나이, 교회규모, 신앙기간, 결혼, 학력, 직분, 온라인 예배 매체	8
온라인 예배 내용	일관성, 예배 분량(시간), 예배 질, 예배 구성	4
목회자와의 상호작용	목회자와 상호작용 (질의응답, 신앙 관리, 피드백 등)	3
평신도와와의 상호작용	평신도와 상호작용 (질의응답, 신앙 관리, 피드백 등)	3
온라인 예배 환경	이용 편리, 접속 상태(버퍼링, 끊김현상, 잡음), 온라인 도구(SNS, 이메일, 문자 등)사용	3
온라인 예배 만족도	전반적인 만족도, 향후 이용 의사 및 추천 등	3

IV. 연구 결과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176명의 참여자 중에서 남성은 66명(37.5%), 여성은 110명(62.5%) 이었고, 참여자의 나이는 10대는 30명(17.0%), 20대는 97명(55.1%), 30대는 12명(6.8%), 40대는 29명(16.5%), 50대는 6명(3.4%), 60, 70대는 각각 1명(.6%) 이었다. 출석교회 규모는 50명 미만이 38명 (21.6%), 50-100명 사이가 25명(14.2%), 100-500명 사이가 39명(22.2%), 500-1000명 사이가 23명(13.1%), 1000명 이상이 51명(29.0%)이었다. 참여자의 신앙기간은 1년 미만은 1명(.6%), 1-5년 사이는 10명(5.7%), 5-10년 사이는 16명(9.1%), 10-20년 사이는 56명(31.8%), 20-30년 사이는 52명(29.5%), 30년 이상은 41명(23.3%)이었다. 참여자의 결혼 상태는 133명(75.6%)이 미혼이었고, 42명(23.9%)은 기혼, 1명(.6%)은 사별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의 학력은 중학교 졸업자는 1명(.6%), 고등학교 졸업자는 4명(2.3%), 대학 재학생은 117명(66.5%), 대학 졸업자는 24명(13.6%), 대학원 졸업자는 30명(17.0%)이었다. 101명(57.4%)이 평신도, 52명(29.5%)이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 22명(12.5%)은 사역자, 구도자는 1명(.6%)이었다. 온라인예배에 참여하는 매체는 PC는 55명(31.8%), 스마트폰은 89명(50.6%), 태블릿 PC는 11명(6.3%), TV는 9명(5.1%), 기타는 11명(6.3%)로 나타났다.

〈표 2〉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N = 176)

구분	빈도수(N)	구성비율 (%)	
성별	남	66	37.5
	여	110	62.5
나이	10대	30	17.0
	20대	97	55.1
	30대	12	6.8
	40대	29	16.5
	50대	6	3.4
	60대	1	.6
	70대	1	.6
교회 규모	50명 미만	38	21.6
	50-100명	25	14.2
	100-500명	39	22.2
	500-1000명	23	13.1
	1000명 이상	51	29.0
신앙 기간	1년 미만	1	.6
	1-5년	10	5.7
	5-10년	16	9.1
	10-20년	56	31.8
	20-30년	52	29.5
	30년 이상	41	23.3
결혼	미혼	133	75.6
	기혼	42	23.9
	사별	1	.6
학력	중졸	1	.6
	고졸	4	2.3
	대학 재학	117	66.5
	대졸	24	13.6
	대학원 졸	30	17.0
직분	평신도	101	57.4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	52	29.5
	사역자	22	12.5
	구도자	1	.6
온라인 예배 매체	PC	55	31.8
	스마트폰	89	50.6
	테블릿 PC	11	6.3
	TV	9	5.1
	기타	11	6.3

2. 성별, 교회 규모, 신앙 기간, 직분별 변인 간 차이 검증

연구참여자의 성별에 따른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t-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모든 변인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세한 결과는 <표 3>에 기술하였다.

<표 3> 성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검증

구분		M	SD	t	p
온라인 예배 내용	남(n=66)	3.44	.95	-.471	.638
	여(n=110)	3.51	.82		
목회자 상호작용	남(n=66)	2.90	1.00	-.904	.367
	여(n=110)	3.05	1.01		
평신도 상호작용	남(n=66)	2.65	1.08	-1.233	.219
	여(n=110)	2.85	1.01		
온라인 예배 환경	남(n=66)	3.25	.88	-.306	.760
	여(n=110)	3.29	.83		
온라인 예배 만족도	남(n=66)	2.89	1.00	-.750	.455
	여(n=110)	3.01	1.01		

연구참여자가 출석하는 교회 규모에 따른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정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예배 내용의 경우 500-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50명 미만 규모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통해 온라인 예배 내용에 대해 50명 미만의 교회와 500-1000명 교회와 1000명 이상의 교회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와의 상호작용과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은 500-1000명 규모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통해 50명 이하 규모의 교회와 500-1000명 규모 교회의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온라인 예배 환경의 경우 500-1000명의 교회에서 가장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50명 이하의 교회에서 가장 낮은 점수를 나타냈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온라인 예배 만족도는 교회 규모 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4>에 기

술하였다.

〈표 4〉 교회 규모에 따른 변인 간 차이 검증

구분		M	SD	F	p	사후검증
온라인 예배내용	50명 미만(a)	3.09	.85	3.841	.005**	a < d, e
	50-100명(b)	3.42	1.08			
	100-500명(c)	3.43	.78			
	500-1000명(d)	3.80	.74			
	1000명 이상(e)	3.70	.78			
목회자 상호작용	50명 미만(a)	2.59	1.01	3.781	.006**	d > a
	50-100명(b)	3.03	1.05			
	100-500명(c)	2.85	.80			
	500-1000명(d)	3.49	.91			
	1000명 이상(e)	3.16	1.05			
평신도 상호작용	50명 미만(a)	2.49	1.07	3.477	.009**	d > a
	50-100명(b)	2.83	1.04			
	100-500명(c)	2.53	.91			
	500-1000명(d)	3.38	1.00			
	1000명 이상(e)	2.86	1.03			
온라인 예배환경	50명 미만(a)	3.04	.96	2.998	.020*	
	50-100명(b)	3.29	.82			
	100-500명(c)	3.07	.79			
	500-1000명(d)	3.67	.74			
	1000명 이상(e)	3.41	.79			
온라인 예배 만족도	50명 미만(a)	2.75	1.05	1.313	.267	
	50-100명(b)	2.87	1.08			
	100-500명(c)	2.89	.81			
	500-1000명(d)	3.28	1.04			
	1000명 이상(e)	3.09	1.04			

* $p < .05$. ** $p < .01$

연구참여자가 출석하는 신앙 기간에 따른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의 경우 신앙 기간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앙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30년 이상의 경우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지만 집단 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온라인 예배를 통한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앙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고, 30년 이상의 경우 낮은 평균 점수를 보였으며,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통해 두 집단 간 유의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자세한 결과는 <표 5>에 기술하였다.

<표 5> 신앙 기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검증

	구분	M	SD	F	<i>p</i>	사후검증
온라인 예배내용	5년 미만(a)	3.70	.77	2.238	.067	
	5-10년(b)	3.62	1.15			
	10-20년(c)	3.44	.83			
	20-30년(d)	3.67	.75			
	30년 이상(e)	3.18	.90			
목회자 상호작용	5년 미만(a)	3.42	.93	2.635	.036*	
	5-10년(b)	3.06	1.10			
	10-20년(c)	3.05	.95			
	20-30년(d)	3.14	1.02			
	30년 이상(e)	2.59	.95			
평신도 상호작용	5년 미만(a)	3.52	.91	5.295	.000***	a > e
	5-10년(b)	2.98	1.08			
	10-20년(c)	2.79	1.01			
	20-30년(d)	2.96	.99			
	30년 이상(e)	2.23	.96			
온라인 예배환경	5년 미만(a)	3.64	.77	.773	5.44	
	5-10년(b)	3.33	.95			
	10-20년(c)	3.24	.71			
	20-30년(d)	3.31	.81			
	30년 이상(e)	3.15	1.03			
온라인 예배 만족도	5년 미만(a)	3.42	.97	1.958	.103	
	5-10년(b)	3.00	1.15			
	10-20년(c)	2.94	.93			
	20-30년(d)	3.12	.99			
	30년 이상(e)	2.96	1.02			

p* < .05. **p* < .001

구도자인 경우를 제외하고 연구참여자의 직분에 따른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차이

를 검증하기 위해 One Way ANOVA를 실시하였고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예배 환경의 경우 직분별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온라인 예배 내용과 만족도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사후검정인 Scheffe 분석을 통해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 집단이 사역자 집단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였다. 자세한 결과는 <표 6>에 기술하였다.

<표 6> 직분에 따른 변인 간 차이 검증

구분		M	SD	F	p	사후검증
온라인 예배내용	평신도(a)	3.49	.85	3.475	.033*	b > c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b)	3.63	.72			
	사역자(c)	3.07	1.11			
목회자 상호작용	평신도(a)	3.02	1.03	2.002	.138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b)	3.10	.93			
	사역자(c)	2.61	.97			
평신도 상호작용	평신도(a)	2.88	1.09	2.967	.054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b)	2.77	.91			
	사역자(c)	2.29	.96			
온라인 예배환경	평신도(a)	3.31	.80	2.433	.091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b)	3.36	.84			
	사역자(c)	2.91	.99			
온라인 예배 만족도	평신도(a)	2.94	1.02	4.627	.011*	b > c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b)	3.21	.88			
	사역자(c)	2.45	1.02			

* $p < .05$

3. 변인 간의 관계 검증

변인 간 평균, 표준편차, 상관관계 결과를 <표 7>에 나타내었다. 변인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피어슨의 상관분석(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을 사용하였으며 .01 수준에서 모든 변인 간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보였다.

〈표 7〉 변인의 평균, 표준편차 및 상관관계

	M	SD	1	2	3	4	5
1. 온라인 예배 내용	3.48	.87	1				
2. 목회자 상호작용	2.99	1.00	.706**	1			
3. 평신도 상호작용	2.77	1.04	.626**	.835**	1		
4. 온라인 예배환경	3.27	.84	.573**	.667**	.571**	1	
5. 온라인 예배 만족도	2.96	1.00	.572**	.620**	.655**	.639**	1

** $p < .01$

4.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에서 온라인 예배 내용을 투입한 모델 1의 설명력은 32.7%, 두 번째 단계에서 온라인 예배 내용을 통제된 후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을 투입한 모델 2의 설명력은 42.0%, 세 번째 단계에서 모델 2에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을 추가로 회귀시킨 모델 3의 설명력은 47.5%, 마지막으로 모델 3에 온라인 예배 환경을 추가로 회귀시킨 모델 4의 설명력은 54.6%로 나타났다. 이는 모델 2가 모델 1에 비해 9.3%, 모델 3이 모델 2에 비해 5.5%, 모델 4가 모델 3에 비해 7.1% 더 설명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평신도와의 상호작용($\beta = .42$, $t = 4.43$, $p < .001$)이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며, 온라인 예배 환경($\beta = .37$, $t = 5.18$, $p < .001$)이 두 번째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고, 온라인 예배 내용($\beta = .16$, $t = 2.19$, $p < .05$)은 세 번째로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며,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은 영향력을 보이지 않았다. Durbin-Watson의 값은 2에 가까운 수치이고 (Durbin-Watson = 2.17)이고 공차 한계 모두 .1 이상의 값을 나타내어 회귀모형에 적합함을 알 수 있다. 위계적 회귀분석의 자세한 결과는 〈표 8〉에 나타내었다.

〈표 8〉 위계적 회귀분석

독립변인		(상수)	온라인 예배 내용	목회자 상호작용	평신도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통계량
모델1	B	.66	.66				R ² = .33 adj.R ² = .32 F = 84.54
	SE	.26	.07				
	β	-	.57				
	t	2.54*	9.1***				
모델2	B	.60	.31	.43			R ² = .42 adj.R ² = .41 F = 62.73
	SE	.24	.10	.08			
	β	-	.27	.43			
	t	2.47*	3.26**	5.28***			
모델3	B	.58	.27	.10	.41		R ² = .48 adj.R ² = .47 F = 51.79
	SE	.23	.09	.11	.10		
	β	-	.24	.10	.43		
	t	2.51*	3.01**	.88	4.21***		
모델4	B	.03	.19	-.09	.40	.43	R ² = .55 adj.R ² = .54 F = 51.38
	SE	.24	.09	.11	.09	.08	
	β	-	.16	-.09	.42	.37	
	t	.12	2.19*	-.79	4.43***	5.18***	
	공차한 계		.479	.221	.300	.534	
	VIF		2.09	4.53	3.33	1.88	

* $p < .05$. ** $p < .01$. *** $p < .001$.

V. 나가는 말

본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한국 기독교인의 온라인 예배 생활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고,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을 분석함으로써 코로나19 시기 이후 한국 기독교 온라인 예배 관련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2020년 12월 1일부터 2021년 3월 29일 사이에 온라인 설문조사 방식으로 실시하였으며, 연구 참여 인원은 최종 176명이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도출된 주요 결론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한국 기독교인의 성별, 출석하는 교회 규모, 신앙 기간, 직분에 따라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대한 차이를 검증한 결과 교회에 규모에 따라 온라인 예배 내용,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 신앙 기간에 따라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마지막으로 직분에 따라 온라인 예배 내용과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서 집단별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으로 scheffe 검증을 시행한 결과 온라인 예배 내용,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 예배 환경에서 500-1000명 규모의 교회와 50명 미만 규모의 교회 사이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대부분의 500-1000명 성도가 출석하는 규모의 교회는 코로나19 이전에는 온라인 방송을 통한 비대면 예배를 제공하지 않았는데, 코로나19 상황에서 이러한 중대형 교회의 발 빠른 대처는 온라인 예배 내용과 목회자 및 평신도와 상호작용, 온라인 예배 환경에서 높은 평균 점수를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50명 미만의 교회는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에서 낮은 평균 점수를 보여 작은 규모의 교회가 상대적으로 상호작용이 높을 것이라는 예상에서 벗어난 결과를 보였다. 온라인 예배 관련 예배 내용과 기술적 환경뿐만 아니라 작은 공동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이는 상호작용에 있어서도 작은 교회가 낮은 이유를 추후 심도 있게 살펴야 하겠다.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이 더욱 가중된 소규모 교회의 지원대책을 살펴볼 때 재정적 지원을 포함한 기술적 환경 외에도 작은 공동체를 유지하고 활성화하는데 필요한 목회자 및 평신도 간의 상호작용 관련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는 의미 있는 결과이다. 또한 온라인 예배를 통한 목회자 및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에서 신앙 기간이 5년 미만의 경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초신자라고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코로나19 시기에 목회적 돌봄이 적절하게 제공된 것인지 아니면 이들이 다년간의 신앙생활을 경험한 성도보다 위기의 시간에 적극적 신앙생활에 참여하여 상호작용 요인이 높게 나타난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온라인 예배 내용과 만족도에서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 집단이 사역자보다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것은 코로나19 초기 사역자 그룹이 온라인 예배 시행에 대한 신학적 논의로 고민하던 것에 비해 평신도 리더 또는 대표 집단은 온라인 예배를 비대면 상황에서 전통적 예배에 대한 대체로서 유연하게 인식하고 동시에 온라인 예배 자체가 주는 편리함과 유익에 만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하여 2년 이상의 온라인 예배에 대한 경험이 두 그룹의 입장에 변화를 주었는지 주었다면 그 변화는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팬데믹이 종식된 후에도 이러한 결과가 지속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피어슨의 상관분석에서 변인 간 정적(+)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독교인들의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평신도와의 상호작용으로 나타났다. 그다음으로 온라인 예배 환경,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 내용이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이었으며,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은 영향력을 보이는 변인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교회의 개념이 가시적인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공동체성을 강조하는 성도의 모임이라는

정의와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며 동시에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도 신자들의 공동체적 관점은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함을 보여주는 실증적 결과이다. 맥그레스가 제시한 교회의 본질에서 교회가 모임의 장소가 아닌 사람들의 모임임을 강조하고 있는데(맥그레스, 2020; 김형락, 2021 재인용), 온라인 예배에서도 신학적 관점의 논의와 더불어 이러한 공동체성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논의가 더욱 필요하겠다.

또한 예배의 교육적 기능을 고려할 때(한춘기, 2000), 온라인 학습에서 제시하는 상호작용의 중요성을 온라인 예배에서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학습에서 학습자의 상호작용이 학업 만족도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는 다수의 연구(김은주, 2003; 정재삼, 임규연, 2000; 유지은, 2020; Beaudoin, 2001)를 바탕으로 온라인 학습 설계 시 학습자 간의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안을 탐색하고 있는데, 온라인 예배에서도 예배 만족도 향상을 위해 성도 간 상호작용을 높이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찾아 온라인 예배 운영 시 적용해야 할 것이다.

온라인 예배 환경과 온라인 예배 내용 또한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변인으로 나타났으므로 온라인 예배 진행 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예배의 내용적 측면에서 예배 시간이나 예배 영상의 질, 구성적인 부분과 함께 버퍼링이나 잠음과 같은 접속상태 등의 예배 환경이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특히 갑작스러운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온라인 예배에서 버퍼링, 영상의 질, 예배 구성 등의 불편한 사항에 대해 관대한 부분이 있었지만 향후 온라인 예배 진행 시 성도들이 불편을 느꼈던 온라인 예배 내용이나 환경을 계속 이해해 줄 것이라 생각해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코로나19 기간 동안 대형 교회의 교회 유튜브 채널 구독자와 주일예배 평균 시청자 수의 증가는 유명 목회자의 설교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부분도 있겠지만 수준 높은 대형 교회의 미디어와 온라인 콘텐츠라는 온라인 예배 내용과 환경적 부분에서 비교우위를 점한 것이 크게 작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최승현, 2021). 따라서 대형 교회가 아닌 대다수 교회에서 코로나 시기 이후 온라인 예배를 지속하기 위한 만족도 측면에서 위의 요인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목회자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코로나19 기간 동안 이전보다 목회자 그룹과 성도와 원할한 상호작용의 부족으로 인해 온라인 예배를 포함한 전반적 신앙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대로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은 남자의 경우 2.90, 여자의 경우 3.05의 평균 점수를 보이고, 평신도와와의 상호작용은 남자의 경우 2.65, 여자의 경우 2.85의 평균 점수를 보여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이 평신도와와의 상호작용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의 평

균이 다른 요인보다는 낮았지만, 평신도 간의 상호작용보다는 높았기 때문에 단순히 상호작용의 부족이 이런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또한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통합)와 목회데이터연구소 등이 실시한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조사에 따르면 목회자들은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을 다음 세대 교육 문제(24.0%), 출석 교인 수 감소(23.4%), 교인들의 주일 성수(일요 예배에 참석하고 주일을 지키는 것) 인식(17.7%), 재정 문제(12.3%) 등을 꼽았고, 상호작용 관련한 어려움은 없었다(하중훈, 2021). 따라서 본 연구에서 목회자와의 상호작용이 온라인 예배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단순히 다른 변인보다 낮은 평균 점수 때문이라고 결론 내리기는 어려워 보이며 추후 관련 연구를 통해 이유를 탐색할 필요가 있겠다.

본 연구 결과의 논의 및 제안점에 더하여 본 연구의 한계를 살펴보면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의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본 연구 결과를 한국 기독교 온라인 예배 전체에 일반화하여 적용하기는 어렵다. 또한 목회자 및 성도 간의 상호작용과 관련하여 코로나19 기간에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교회적 특성상 온라인 상의 상호작용에 익숙하지 않은 목회자나 평신도, 또는 연령대가 있을 수 있기에 그런 집단 별 연령별 특성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 본 연구의 설문 문항은 본래 온라인 예배를 위해 구성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본 연구의 한계로 작용할 수 있다.

코로나19라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시행된 한국 교회의 온라인 예배에 대해 아직까지도 논란이 지속되는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해 앞으로의 신앙생활에서 온라인 상황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논의가 향후 온라인 예배의 지속 가능성을 타진하는데 실증적 시사점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온라인 학습 관련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온라인 예배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인 성도와의 상호작용은 기독교 메타버스 공동체와 같은 가상세계에서의 신앙공동체에도 적용되리라 기대되기 때문에 본 연구를 기초로 실증적 온라인 예배 관련 연구가 지속되길 기대해 본다.

참 고 문 헌

- 강주화 (2022. 7. 5). 온라인 예배 경험자 82% “온라인에서도 교회공동체 소속감” 국민일보 홈페이지.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53483>에서 인출.
- [Kang, J. H. (2022. 7. 5). 82% of those who have experienced online worship “Sense of belonging to the church community even online.” Accessed from <https://m.kmib.co.kr/view.asp?arcid=0924253483>.]
- 김성중 (2020). 코로나19 시기 이후의 기독교교육의 방향. **기독교교육논총**, 63, 39-64.
- [Kim, S-J. (2020). The Direction of Christian Education in the Post COVID-19.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39-64.]
- 김수영 (2005). **선교 커뮤니케이션을 위한 위성방송에 관한 연구**. 미출판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신학대학원.
- [Kim, S-Y. (2005). A study on a direct broadcast by satellite for communication in missions. Unpublished master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Theology, Ewha Womans University.]
- 김은주 (2004). 협동학습에서 학습자의 사전성취도와 의사소통 성향의 개인차가 수업 만족도에 미치는 효과. **교육학 연구**, 42(3), 123-151.
- [Kim, E. J. (2005). The Effects of Students Achievement Level and Communication Orientation on Cooperative Learning Class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42(3), 123-151.]
- 김형락(2021). 기독교 메타버스(Metaverse) 공동체와 예배에 대한 연구. **신학과실천**, 76, 41-66.
- [Kim, H. R. (2021). A Study of Christian Metaverse Community and Worship. *Theology and Praxis*, 76, 41-66.]
- 박건도 (2022, 4. 20). “메타버스 속 교회, 현장예배로 인도하는 통로” 데일리굿뉴스 홈페이지.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92>에서 인출.
- [Park, G. D. (2022, 4. 20). The Church in the Metaverse, the Pathway that Leads to Worship. Accessed from <https://www.goodnews1.com/news/articleView.html?idxno=407392>.]
- 박기영·송진영 (2021). 팬데믹 상황에서의 목회돌봄 패러다임 연구. **신학과 실천**, 73, 503-530.
- [Park, K. Y. & Song, J. Y. (2021). A Study on the Paradigm of Pastoral Care in the Pandemic Situation. *Theology and Praxis*, 73, 503-530.]
- 박진우 (2021). COVID-19 이후의 기독교 예배참여자의 비대면 예배 경험에 대한 연구. **신학과 실천**, 74, 85-115.
- [Park, J-W. (2021). A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n-Face-to-Face Worship of Participants in Christian Worship After COVID-19. *Theology and Praxis*, 74, 85-115.]
- 손동준 (2022. 5. 2). ‘온라인 예배’ 2년의 초라한 성적표...“보는 콘텐츠로 전략”진보 성향 기사연 조사 결과, 예배 본질과 괴리 나타나. 아이굿뉴스 홈페이지.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613>에서 인출.
- [Son, D. J. (2022. 5. 2). Shabby report card for 2 years of ‘online worship’... “Degenerate into content to watch.” Accessed from <https://www.igoodnews.net/news/articleView.html?idxno=69613>.]
- 신현호 (2022). 메타버스를 통한 디지털 스토리텔링에 대한 기독교교육적 연구. **기독교교육논총**, 70, 267-302.
- [Shin, H. (2022). A Study on the Implications of Christian Education on Digital Storytelling in the Metaver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0, 267-302.]
- 알리스터 맥그레스 (2020). **신학이란 무엇인가: 기독교 신학 입문**. 김기철 역. 서울: 복있는 사람.
- [McGrath, A. E. (2020). *Christian Theology: An Introduction*, Trans. by Kim, K. C., Seoul: Blessedman.]
- 오현주·홍경화 (2021). 코로나 19 시대의 온라인 어린이 예배에 대한 연구: 실시간 쌍방향 화상 예배를 중심으로. **기독교교육 정보**, 70, 137-169.
- [Oh, H. J. & Hong, K-W. (2021). A Study of Online Children’s Worship During COVID-19: Focusing on Real-Time Interactive Online Worship.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70, 137-169.]

- 육장흠 (2022). 메타버스의 기독교교육 적용방안. **기독교교육논총**, 70, 37-74.
- [Ok, J. H. (2022). Study on the Application for Christian Education by Metaverse.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0, 37-74.]
- 유지은 (2020). 온라인 학습에서 자기주도학습능력, 상호작용 및 수업만족도의 구조적 관계. **기독교교육논총**, 63, 255-281.
- [Yoo, J. (2020). Structural Relationship among Self-Directed Learning Ability, Learner-Instructor Interaction, Learner-Learner Interaction, and Class Satisfaction in Online Learning Environments.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63, 255-281.]
- 이선영·김난예 (2022). 포스트코로나 시대 메타버스 기독교교육 플랫폼. **기독교교육논총**, 71, 341-370.
- [Lee, S. Y. & Kim, N. Y. (2022). The metaverse christian educational platform in post-Corona era.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 Korea*, 71, 341-370.]
- 이은경 (2020). 언택트 시대의 예배와 신앙교육 - 비대면을 넘어 다면(multi-faceted) 교육으로. **기독교교육정보**, 66, 295-322.
- [Lee, E-K. (2020). Worship and faith education in an untact society: : Toward multifaceted education beyond the untact education. *Journal of Christian Education Information Technology*, 66, 295-322.]
- 장형철 (2021).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시행된 비대면 예배에 대한한국 개신교인들의 태도와 인식 그리고 온라인 예배의 가능성. **종교와사회**, 9(2), 49-79.
- [Jang, H. C. (2021). Korean Protestants' Attitudes and Perceptions of Non-face-to-face Sunday Services Du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the Possibility of Online Services. *Asian Journal of Religion and Society*, 9(2), 49-79.]
- 정재삼·임규연 (2000).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참여도, 성취도 및 만족도 관련요인의 효과 분석. **한국교육공학회**, 16(2), 107-135.
- [Jung, J. S., & Lim, K. Y. (2000). Effect Analysis of Factors Related to the Learner Participation, Achievement, and Satisfaction in the Web-Based Online Discussion.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16(2), 107-135.]
- 지용근(2020. 6. 15). 통계로 보는 한국교회 상황 [컨퍼런스 세션. 코로나19 이후의 교회 대토론회, 서울.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5_01_17&wr_id=1에서 인출.
- [Ji, Y. K. (2020. 6. 15). A Conference on COVID-19 and the Korean Churn Hereafter. Accessed from http://new.pck.or.kr/bbs/board.php?bo_table=SM05_01_17&wr_id=1.]
- 최승현 (2021. 8. 20). 온라인 예배 시대, 더 '커진' 대형 교회들 조회수 상위 10개 교회 살펴보니 분당우리·꿈의교회 등 강세… 찬양, 기도회 등 콘텐츠 띄우는 교회도. 뉴스앤조이 홈페이지.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18>에서 인출.
- [Choi, S. H. (2021). Online Worship Era, Bigger Mega Churches. Accessed from <https://www.newsjoy.or.kr/news/articleView.html?idxno=303218>.]
- 테레사 배르거 (2020). 예배, 디지털 세상을 만나다. 안선희 역. 서울: CLC.
- [Berger, T. (2020). *Liturgical Practices in Digital World*. Trans. by Ahn, S. H., Seoul: CLC.]
- 표현모 (2022. 5. 25). 성도들, 코로나 이후에도 '온라인 예배' 강화 요구 높아. 한국기독교공보 홈페이지.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373245451>에서 인출.
- [Pyo, H. M. (2022. 5. 25). Saints, demand for strengthening 'online worship' is high even after COVID-19. Accessed from <http://m.pckworld.com/article.php?aid=9373245451>.]
- 하중훈 (2021. 8. 16). 교인들 안 보면 불안한 목회자…온라인 예배도 진지한 성도들. 서울신문 홈페이지.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6015006>에서 인출.
- [Ha, J. H. (2021. 8. 16). An anxious pastor who can't see the church members... Serious believers in online worship. Accessed from <https://www.seoul.co.kr/news/newsView.php?id=20210816015006>.]

- 한상렬 (2021). 메타버스 플랫폼 현황과 전망. *Future Horizon*, 49, 19-24.
[Han, S. R. (2021). Metaverse platform status and prospects. *Future Horizon*, 49, 19-24.]
- 한춘기 (2000). 예배의 교육적 기능. *신학지남*, 67(1), 68-83.
[Han, C. K. (2000). The educational function of worship. *Concise Reformed Dogmatics*, 67(1), 68-83.]
- Beaudoin, M. (2001). Learning or lurking?: Tracking the 'invisible' online student. *The Internet and Higher Education*, 5, 147-155.
- Oh, H. J., & Hong, K. (2021). A case of online children's ministry in South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Christian Education Journal*, 18(3), 473-486. <https://doi.org/10.1177/073989132111045087>